

■ 오페라 탄생 400돌... 오페라와 친구되기

영화서·CF서... 아! 그 음악

1607년 '오르페오'가 최초 아이다·카르멘 등 아리아 친숙 '나비부인' 등 광주공연 줄이어

1607년 2월 22일 이탈리아에서 클라우디아 몬테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오르페오'가 초연됐다.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와 그녀의 아내 에우리디케의 비극적 사랑을 주제로 한 '오르페오'는 악보가 전해지는 최초의 오페라로 꼽히는 작품. 올해는 '오르페오'가 공연된지 꼭 400년이 되는 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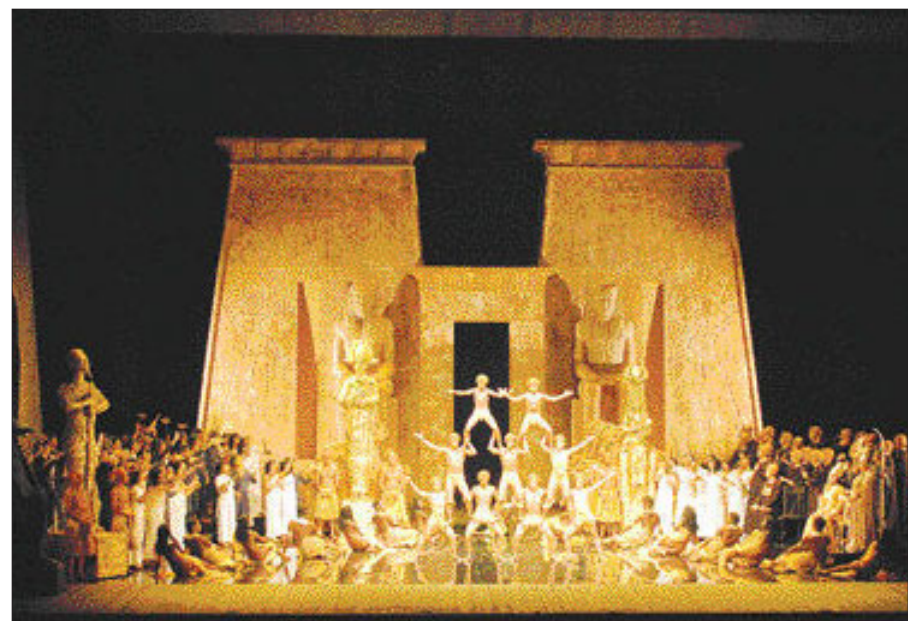
사실, '오르페오'는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해 다소 어려운 장르로 꼽힌다. 특히 오페라인 프라가 빈악하 광주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오페라 작품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오페라 음악은 교향악단의 연주회나 독창회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다. 또 '오르페오의 ABC'로 불리는 '아이다' '라 보엠' '카르멘' 등 유명 작품의 음악은 영화나 CF 등에도 삽입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와 가까이 있다.

오페라 탄생 400년을 맞아 광주오페라단 임혜철(51) 단장의 도움으로 초보자도 듣기 쉬운 오페라 음악 10곡을 꼽아봤다. 한편 올해 광주 오페라 단체의 공연 라인업은 감숙자 오페라단의 '황진이', 광주오페라단의 '나비부인', 빛소리 오페라단의 '라 보엠'이다.

▲주옥같은 아리아=오페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주인공들이 부르는 아리아다. 아리아는 예술성이 풍부한 독창곡을 의미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베르디의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은' 가장 유



올해는 오페라 탄생 400주년인 되는 해다.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오페라 음악을 접하면서 오페라 감상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사진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한장면.

명한 테너 아리아 중 하나다. 푸치니의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역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레퍼토리.

오페라에 문외한인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우수에 젖은 남자 가수의 목소리가 일품인 곡이다.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비제의 '카르멘' 중 '하비네라'는 흥겨운 발레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중창·합창곡=알렉산드로 뒤마의 원작을 오페라로 옮긴 '라 트라비아타'는 '춘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첫 공연된 오페라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1막 첫머리 파티 장면에서 부르는 '축배의 노래'는 많은 음악회에서 피날레곡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 있는 곡이다. 베르디의 '나부코'에 등장하는 '히브리노

에들의 합창'과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푸치니의 '나비부인' 중 '하밍 코러스'는 합창곡 중에서 유명세를 탄 곡이다.

▲관현악곡=분격적인 곡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는 서곡과 간주곡은 교향악단의 연주회 등에서 따로 떼어내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이 가장 유명한 레퍼토리 중 하나다. '대부' 등 영화음악에도 많이 쓰인 서정적인 음악이다.

이집트 라디메스 장군과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 베르디의 '아이다' 중 2막 2장에 등장하는 '개신행진곡'은 웅장한 분위기의 연주가 일품이며 러시아의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도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경기도 양주에 '천경자 미술관'

작품·소장품 1,000여점 전시...시립미술관으로 건립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장흥면 석현리 장흥관광지 내에 원로화가 천경자(82)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을 전시할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천 화백측은 채색화와 미완성 작품, 드로잉 작품 등 1천여점의 작품과 화구 등 개인소장품을 기증해 전시하게 된다.

시는 2008년 상반기에 미술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 2010년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부지 매입과 함께 중앙 문화재 인사들과 관공자 내 아뜰리에 빌리지에 살고 있는 중견화가 등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관 건립 규모, 설계, 전시계획, 국내 유명미술관과의 교류 등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천경자 작 '황금의 비'

시는 또 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모델을 아뜰리에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아트타운 조성과 체계적 개발을 통해 장흥관광지를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흥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은 주로 '여인'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대표작인 현대 여성 원로화가로 '목화 밭에서', '꽃다발을 안은 여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황금의 비'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는 거동이 전혀 못하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남스

김창렬·전혁림... 한국화단 대표작가 10인

31일까지 대동갤러리 특별전

대동갤러리는 31일까지 한국화단의 대표작가 10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 베스트 셀러 '화접기행'의 작가 김병중, 고희 출신의 화가 천경자, 추상화의 대가 전혁림을 비롯, 이말총, 구자승, 이서주, 김영재, 김홍중, 김영중, 서의 작품 70여 점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전시작은 김홍중의 '소녀의 꿈', 김영태의 '법주사 팔상전', 이말총의 '제주생활의 중도' 등이다.

이 작품은 대동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렬 대표가 30여년 동안 모은 소장



김병중 작 '생명의 노래'

품 300점 가운데 일부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정크아트 프로그램 '울랄라' 참가자 모집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인공·평화 도시를 위한 시민프로그램 '도시를 잡는 무지개' 중 정크아트 프로그램 '울랄라~울랄라'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술미술평화교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잔해 등 각종 폐기물을 수집해 조합·색칠해 독특한 예술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악기형 조형물을 만들게 된다.

오는 4월 1일 옛 전남도청 별관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1차 시민워크숍은 폼지락 공연, 밀머리 소리놀이터 톱 소개, 폼벌레(몸에서 나는 소리를 이용해 리듬을 만들어 노는 것)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차 워크숍은 9일 진행되며 21~22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 옆 썬다공원에 소지하이터를 제작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23-7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광주' 2007년 봄호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소식지 '문화광주' 2007년 봄호를 펴냈다.

이번 호에서는 '문화를 키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광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기점으로 다뤘으며 '문화바우처' 사업을 집중 분석했다.

또 문민화가 박태후씨, 신임광주예총 회장 최규철씨 인터뷰 기사가 실렸으며 광주 신창동 유적에 대한 글도 담겨 있다. 문의 062-381-2234.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31일 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박호진) 제93회 정기연주회가 31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악동하는 봄나들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은 '새처럼 날아가리' '꽃타령' '개구리' '두껍이 문지기' 등의 노래를 들려준다. 사랑의 부부합창단과 박현진

(가야금 병창), 이형근(오보에), 양아연(조성대) 등이 찬조출연한다.

한편 합창단은 올해부터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뮤지컬도 정기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 '뉴욕신화'를 꿈꾸며

얼마 전 '2007 뉴욕아트페어'에 참가하고 돌아온 설치작가 이아남(39)씨는 요즘 '귀하신 뎀(?)이 됐다. 그를 찾는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씨는 난생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미술시장에서 40개국 수백여 명의 작가들을 제치고 토속적인 민화를 소재로 한 디지털 영상 작품 3점을 판매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운송상의 어려움으로 소품 판매에 만족해야 했지만, 가격을 떠나 벽안의 컬렉터들의 지갑을 열었다는 것은 분명 사건이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무명(無名)에 가까운 광주작가가 1점도 아닌 3점의 작품을 판매한 예는 지역 미술계에선 처음 있는 것으로, 선후배 미술인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지역 미술인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정작 다른데 있다.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에서 작품을 팔아치운 비경도 공경하지만, 그보다는 국제미술계의 흐름을 '귀동냥'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씨와 함께 뉴욕 컬렉터들의 관심을 모았던 조각가 최은태(32)씨도 요즘 한껏 고무돼 있다. 곤충 등을 소재로 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지역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아트페어에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다. 무엇보다 실험적인 작품을 알아주는 외국 컬렉터들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요즘 광주 미술계의 핫 이슈는 단연 뉴욕 아트페어다. 나인갤러리가 주축이 된 광주작가 9명이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뉴욕아트페어에서 작품 10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근래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국제경매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른 한국작가들과 비교하면 소박한 규모이지만 지역작가들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결실이다.

사실 광주는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미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광주작가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많은 큐레이터나 컬렉터들이 참가하는 국제아트페어에 나가기 위해서는 상업화랑의 후원이 절대적인데, 유감스럽게도 광주에는 지역작가들이 '비밀 언덕'이 없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하나 대회가 끝나면 그뿐. 광주작가들을 국제미술시장에 진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뉴욕에서의 성과는 지역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작가들이 지역적인 일을 깨고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뉴욕 성공 신화가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언제까지 광주미술이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property listings. Each column includes a header (e.g., '대인동삼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The listings specify location, size, and price.